

호가스 출판사와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버지니아 울프

조 성 란

1. 들어가며

출판과 문화 민주주의

「블룸스버리 작가들의 방송」(“Broadcasting Bloomsbury Author(s)”)의 저자인 미디어 학자 케이트 화이트헤드(Kate Whitehead)에 따르면 블룸스버리 그룹 멤버들은 라디오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다(125). 레너드(Leonard)와 버지니아 울프) 부부는 총 세 번에 걸쳐 이러한 라디오 대담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첫 방송이 1927년 7월 15일에 방송된 「너무 많은 책이 쓰이고 출판되고 있는가?」(“Are Too Many Books Written and Published?”)²⁾이다. 이

1) 이후 본고에서는 맥락에 따라 레너드 울프는 레너드 또는 레너드 울프, 버지니아 울프는 버지니아, 버지니아 울프, 또는 울프로 표기한다.

2) 멜바 커디-킨(Melba Cuddy-Keane)은 『현대어문학회저널』(PMLA)의 책과 출판에 관한 2006년 1월 특집호에 저술가 협회(the Society of Authors)의 허가를 얻어 울프 부부의 방송 원고를 편집, 출판했다. 본고의 논의는 이 방송 원고를 참고했다. 다른 두 번의 방

때 레너드와 버지니아 울프 부부는 이미 십 년 이상 호가스 출판사(Hogarth Press)³⁾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버지니아는 방송 2년 전인 1925년 『일반 독자』(*The Common Reader*)를 출간했다. 당시 영국 공영 방송국(BBC)은 당대의 첨예한 문화적 쟁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울프 부부는 출판인이자 작가로 참여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출판 시장의 현황을 분석했다.

『현대어문학회지널』(*PMLA*)에 실린 이 프로그램의 방송 원고를 보면 방송은 레너드와 버지니아가 지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레너드는 당대 출판의 문화적 환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레너드 분석의 주안점은 대량 출판으로 인하여 글쓰기와 생산이 공장 제도화하고 질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출판은 영화 등 타 매체와의 경쟁에서도 위협받고 있다. 반면에 버지니아의 견해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 대량 생산을 통하여 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쉬운 책 읽기가 가능한 좀 더 평등한 세계가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흥미롭게도 울프는 대량 생산을 지지하며 펄킨 문고판을 예견한 담배 값만큼 값싼 책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책을 출판하자는 시대에 앞선 제안을 한다. 글쓰기에 관하여서 또한 더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출판할 것을 권장한다. 책의 수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저자가 써내는 책의 수가 많은 것이므로 삼십 권 이상 쓰면 벌금을 부과하여 그 양을 제한하고 대신 전문 작가가 아닌 다양한 일반인들의 글쓰기를 출판에 포함하자는 회화적 제안도 한다. 버지니아는 출판물의 대량 생산이 초래할 대중문화의 질적 저하와 확실성을 우려하는 대신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부각시킨다. 이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누구나 일반 독자가 될 수 있는 문화민주주의 사회의 비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F. R. 리비스와 퀴니 리비스 부부는 ‘진실한’ 노동 계급의 작가 D. H. 로렌스와 대치시켜가며 버지니아와 불룸즈버리 그룹을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지만(Marcus 26), 이 방송은 모더니즘 계열의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당대 문화와 유리된 엘리트주의자가 아니고 일상의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모더니스트’ 버지니아가 출판과 글쓰기에 대하여 민

송은 ‘Beau Brummell’(20 Nov. 1929)과 ‘Craftsmanship’(29 Apr. 1937)이다. Leonard and Virginia Woolf, ‘Are Too Many Books Written and Published?’, edited with intro. by Melba Cuddy-Keane, *PMLA* 121.1 (Jan. 2006): 235-44 참조.

3) 이후 Hogarth Press는 문맥에 따라 호가스 출판사 또는 호가스로 표기.

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책 읽기, 책 쓰기, 그리고 출판이 문화의 민주적 확장이라는 울프의 주장은 호가스 출판사의 운영 원리와 가치관을 반영한다. 글 읽기와 글쓰기의 외연 확장이라는 민주적 지침은 호가스 출판사의 출판 간행물 선택의 준거이며 실제 버지니아가 출판인으로서 실천했던 것이다. 예컨대 출판 초기부터 주변의 친지, 특히 여성들에게 자서전을 쓸 것을, 그리고 이러한 자서전적 글쓰기를 통해 여성 스스로 자기 성찰과 주체성 확립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촉구했다.

울프 부부는 1917년에서 1941년까지 24년 동안 함께 호가스 출판사를 운영했다. 호가스 출판사는 울프 부부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여 작가로서의 울프의 글쓰기에 기여 했고 작가와 출판사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발전했다. 또한 호가스 출판사는 긴 세월을 걸쳐 과감하고 때로 혁명적인 출판을 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담론 공동체로 기능했고 이에 따라 울프 부부는 글쓰기 뿐 아니라 출판을 통해서도 당대 영국 문화와 담론의 중심에서 공적 지식인⁴⁾의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호가스 출판사의 중요성과 의미는 울프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고 정치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논한 경우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첫째, 호가스 출판사가 작가 버지니아에게 어떤 양상으로 개인적으로 기여하였는지 고찰하고 둘째, 간행된 출판 목록의 성격과 출판의 궤적을 추적하여 사적으로 시작한 작은 출판사가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맥락을 논하며 호가스 출판사의 문화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논구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출판을 통한 버지니아 울프의 사회적 기여와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가스 출판사에 관한 이 연구는 사회인문학⁵⁾적 연구의 시작으로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공적 지식인으로서 버지니아 울프의 총체적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호가스 출판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내 학계에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없고 영어권에서도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출판 전체 서지 목록에 대한 토대 연구

4) 본 논문에서는 공적 지식인을 실천적 지식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3기니』의 행간에 서 드러나는 “교육받은 남자의 딸”로서의 울프는 자기 계급에서의 의식화, 조직화와 실천을 의미하는 유기적 지식인(그람시)에 속한다.

5) 분과 학문의 틀을 벗어난 인문학 연구 방법론으로 현실에 대한 성찰과 비판, 학문 간 및 국내외의 수용자와의 소통, 대중과의 소통의 실천을 지향한다.

가 되어 있다. 다나 리(Donna E. Rhee)의 『레너드와 버지니아 울프의 호가스 출판사 핸드 프린트, 1917-1932』(*The Handprinted Books of Leonard and Virginia Woolf at the Hogarth Press, 1917-1932*), 윌슨 고든(Elizabeth Wilson Gordon)의 논문들이 있고, J. H. 윌리스(J. H. Willis)의 『출판가로서의 레너드와 버지니아 울프: 호가스 출판사 1917-1941』(*Leonard and Virginia Woolf as Publishers: The Hogarth Press, 1917-1941*)는 연대별과 주제별로 출판 목록을 개괄하고 있다(Drew 316).

비평가 패트릭-쉐논 드루(Patrick-Shannon Drew)는 에세이 식 논문 「울프와 출판: 왜 호가스 출판사가 중요한가?」(“Woolf and Publishing: Why the Hogarth Press Matters.”)에서 호가스 출판사에 대한 헌사를 신고 있다.

왜 호가스 출판사가 중요한가? 왜 신경 써야 하는가? 대형 출판사의 마케팅 부서의 위원회에서 수입 창출의 가능성, 시장성을 따져서 출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두 사람, 버지니아와 레너드 울프라는 두 사람의 지성인이 시장성이 아니라 지력과 감성, 미학적 취향을 기반으로 해서 출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 . 21세기에 출판사는 붕괴되어 가고 소형 출판사의 도태로 상업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예술가들의 목소리는 잦아들며 . . . 호가스 출판사와 같은 출판사가 다시 변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6) (320-21)

드루는 그가 소지한 『세이도』(*Sado*)라는 소설 초판본의 내용보다도 그 책의 원고를 울프가 읽고 출판을 결정하고 실제로 출판했다는 사실, 책 표지와 밑에 “런던 타비스톡 스퀘어 52번지 호가스 출판사에서 레너드와 버지니아 울프가 1931년에 출판함”(Published by Leonard and Virginia Woolf at the Hogarth Press, 52 Tavistock Square, London, W. C.1931)이라는 글귀가 찍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에게 아트 오브제와도 같은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고 고백한다(320).

울프 생애에 있어 공적인 사건들과 사적인 이야기들을 잘 엮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Berman 471) 허마이오니 리(Hermioni Lee)의 울프 전기는 한 장(章)을 할애하여 출판사와 울프에 관하여 논한다. 울프 부부에게 호가스 출판사의 역사야말로 공적인 사건들과 사적인 이야기가 교차되는 지점이었다. 1916년 10월에 버지니아는 엘리노어 세실(Elinor Cecil)에게 옛날 친구들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우

6) 이후 본 논문의 영문 인용의 번역은 필자.

리 친구들 모두의 개인적 이야기를 위해서” 출판사를 시작한다고 썼다. 하지만 1931년 즈음에는 출판사는 대단히 정치적이 되어 있었다. 울프는 호가스 출판사가 팸플릿과 편지, 강연 원고를 출판하는 수준에서 정신분석학 문고와 새로운 글쓰기의 2절판, 시 뿐만 아니라 경제학, 제국 그리고 무장 해체에 대한 책들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발전하게 될지 상상하지 못했으며 흥미로운 취미에서 사업으로 변화할 것 또한 예측할 수 없었다(리 715, 704-05). 한편 비평가 어슬라 맥태جت(Ursula McTaggart)은 2010년의 연구에서 호가스 출판사를 『3기니』에서 울프가 제시한 “국외자 단체”(Outsiders’ Society)의 전망을 현실에서 시도한 담론 공동체로 해석하는 독창적 의견을 개진한다(63). 울프는 이 국외자 단체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에는 없는 유토피아적 공간일 지도 모른다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맥태جت은 이 국외자 단체가 다양한 사고와 글쓰기, 지적, 예술적 교류가 실현되는 가능성의 맹아를 지닌 공간이며, 호가스 출판사와 출판사를 구심점으로 한 공동체가 그 단체의 한 예라고 해석한다.

본론의 연구는 첫째, 호가스 출판사가 울프 개인에게 끼친 영향력과 기여, 둘째, 호가스 출판사의 사회문화적 기여, 셋째, 이를 바탕으로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울프, 국외자 단체로서의 호가스 출판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II. 작가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호가스 출판사의 기여

“나는 영국에서 가장 자유롭게 자기가 쓴 글을 출판할 수 있는 사람이다!”(리 730).

호가스 출판사는 버지니아에게 실존적 의미에서의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제공했다. 출판 일은 글쓰기라는 정신노동의 고단함에서 간헐적으로 벗어나 다른 종류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경제적 자립을 통한 물질적 자유를 제공했다. 또한 출판인의 간섭에서 벗어난 창작의 자유를 주었다. 호가스 출판사는 울프 부부 생활의 물적 토대이며 블룸스버리 그룹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사회적 인간 관계망을 제공한 곳이기도 하다. 울프 부부는 출판 네트워크를 통해 블룸스버리 그룹 안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지적, 예술적 교제를 했다.

버지니아에게 호가스 출판사가 가지는 개인적인 중요성은 창작의 노고에서

분리하여 치유를 한다는 레너드의 최초 목표에서 드러난다. 리(Lee)는 울프 전기에서 버지니아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 호가스 출판사의 설립 과정을 상술한다. 1915년 1월 25일, 울프 부부는 버지니아의 생일을 위해 고양이와 출판기를 산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판사를 계획 한다. 레너드의 관점에서는 그녀에게 치료의 역할을 해 줄 활동을 찾기 위해서였다. 즉,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작품에서 앗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일”로 “출판이 버지니아에게 치료 형태가 되기를” 기대했다 (Leonard Woolf, 『다시 시작』 223, 리 705 재인용), 또한 그녀의 건강에 대한 레너드의 근심, 그들의 상호 관심, 그들의 불화 영역, 그리고 목록에 반영된 그들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삶 등 출판사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결혼 이야기와 같은 두 사람의 연결고리였다. 출판사의 일은 “그들의 결혼처럼 두 사람을 단단히 붙들어매었고,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울프 1918년 12월 일기, 리 706 재인용)이었으며, 글 쓰는 작업에서 벗어나서 “세밀한 것에 빠져 중독되는 것, 미학적인 결정들, 지루한 기계적인 일과들이 혼합된”(710) 일이었다.

레너드가 처음 목표로 한 치유적 기능과 더불어 작가 울프에게 호가스 출판사가 제공한 것은 창작과 출판의 자유이다. 글쓰기와 출판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호가스 출판사는 버지니아 울프에게 자신의 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호가스가 있음으로 해서 울프의 처음 두 소설 『항해』(*Voyage Out*)와 『밤과 낮』(*Night and Days*)을 출판한 의붓오빠 제럴드 덕워스(Jerald Duckworth)의 출판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출판의 자유는 글쓰기의 자유 또한 제공했다. 검열의 공포나 편집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과 남편 레너드만을 위해 글을 쓰면 되는 상황은 상상력과 창작 에너지를 자유롭게 분출하도록 했고 견제 없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각종의 문학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호가스의 첫 출판물인 「벽 위의 얼룩」(“Mark on the Wall”)에서 시작하는 스타일의 실험은 이어 『제이콥의 방』(*Jacob's Room*),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 『등대로』(*To the Lighthouse*), 『파도』(*The Waves*)의 글쓰기 실험으로 이어진다. 울프 명성의 토대가 되는 이 작품들의 출판을 위하여 호가스 출판사가 아닌 다른 출판사를 찾아다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비평가 드루의 말처럼 “너무 대중적이지 않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섬세하다, 너무 여성적이다”(318)의 반응을 보이며 혼란스러워 하는 편집자들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 출판에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편집자의 까다로운 비판적 시선에서 벗어나 마음껏 창작의 혁신적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버지니아 울프처럼 새로운 문학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작가에 있어서 호가스 출판사가 제공하는 가장 큰 기여였다. 출판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울프의 글쓰기에 영향을 주었다. 호가스는 울프를 단순히 예술가, 글의 창조자의 역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생산-유포-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편집인, 출판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출판사의 운영은 글쓰기에 관한 두 가지 생각, ‘어떻게 글이 존재하게 되고’ ‘누가 독자인가’에 관한 영감을 주었고 글 읽기와 문학의 유포에 관한 그녀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에 따라 그녀의 글쓰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리 727).

한 편, 호가스 출판사의 운영은 출판사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한 지적 교류를 제공했다. 울프에게는 이미 가족처럼 구성되어 있는 지적, 정서적으로 친밀한 블룸즈버리 그룹의 공동체적 협동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출판을 함으로써 울프는 당대의 지성과 근접한 거리에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성장했다.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의 예, 캐서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와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경우를 살펴보자. 맨스필드 또한 한 저널의 편집장을 맡고 있었다. 울프는 그녀를 지적, 문학적 경쟁상대로 여기면서도 친밀하게 지냈고 그녀의 글을 좋아했다. 맨스필드의 『서곡』(Prelude)은 호가스가 처음 출판한 목록 중 하나이다. 한 편 클라인의 영향은 울프가 ‘사물/대상’(object)에 집중하게 했다. 페리 마이젤(Perry Meisel)의 연구 「울프와 프로이트: 클라인에게로의 선회」(“Woolf and Freud: Kleinian Turn”)에 따르면 클라인 이론의 영향으로 울프는 소설에서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에 깊이 있게 천착할 수 있었다. 부계 중심의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모계중심으로 궤도 수정한 클라인의 대상관계 정신분석은 특히 울프가 『등대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램지 부인의 모성과 그 영향력의 재현에 영향을 미쳤다.

호가스의 또 다른 기여는 경제적 자유이다. 레너드의 자서전은 꼼꼼하게 경제적인 측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레너드에 따르면 큰 부를 목표로 세운 것은 아니고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중시했지만 출판사는 흑자를 보았다. 1928년 『올랜도』(Orlando)의 성공으로 흑자를 보기 시작했고 프로이트 정신분석 서적의 꾸준한 번역 또한 성공하여 출판사는 경제적인 자립과 자유 또한 제공했다(Downhill 143). 울프보다 먼저 오메가 워크숍(Omega Workshop)이라는 예술 공방

을 운영하고 있었던 블룸스버리 멤버 로저 프라이(Roger Fry)에게서 호가스 출판사 재정 운용의 아이디어와 도움을 얻기도 했다. 출판사 시작 단계에서 오메가 워크숍의 구독자 목록을 이용하여 사전 구매 예약을 함으로써 출판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확보했다. 오메가 워크숍의 경제 원칙인 선물 경제(gift sphere)의 방법에 따라 이윤을 남기는 출판물에서 자금을 확보하여 이윤 창출이 힘들더라도 신념에 따라 본격 실험 시, 정치, 국제 관계 팸플릿 등을 출판, 배포할 수 있었다(Stimpson 170).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호가스 출판사가 울프에게 준 개인적인 기여를 고찰했다. 이후 호가스 출판사가 작가 발굴과 출판을 통해 담은 선도자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을 논하고자 한다. 호가스 출판사는 인정받지 못한 젊은 아방가르드 작가들과 영국 제국의 주변부에서 오는 작가들이 모이고 또 지적으로 교제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III. 호가스 출판사의 사회문화적 기여

출판사 초기에 울프 부부는 자신들의 작품들과 주로 시와 소설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호가스 출판사는 탁월한 시사적 에세이와 편지들의 출판사로서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에세이와 편지 시리즈를 통하여 당대의 예술적, 지적, 정치적 이슈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고 유럽의 파시즘의 발흥에 관하여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편지와 호가스에서 출판한 레너드 울프의 『대흥수 이후』, 『문간의 야만인』, 『제국과 아프리카에서의 상업』, 『제국과 문명』, 『꽤 꽤』 등의 저서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3기니』 등의 저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20세기 초기의 정치적 글의 중심에 호가스 출판사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가스 출판사는 출판사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20세기에 태어난 “자기만의 출판사”(A Press of One's Own)로 그 출판 목록은 총 417개에 이르며(Willis 132), 호가스 출판사의 역사야말로 “보기 드문 재능, 시간, 개인적 필요, 그리고 기회”의 조합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402). 출판사의 새로운 구독자를 찾는 1922년의 5주년 공고는 호가스 출판사와 그 출판을 “전문 인쇄공의 서비스를 고용해 번창하는 사업체이면서 개인 집에서 다소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남는 시간에 아마추어들이

실행하는 작업”으로 설명한다(리 715 n27).

주목할 것은 이 5주년 공고에서 내세운 출판사의 목표가 “진정 가치 있으나 . . . 좀처럼 일반 통로를 통해서 출판 확보를 기대할 수 없는 작품들을 만드는 것”으로 묘사하여 출판사의 시대 선도적 특성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711). 호가스 출판사에 관한 본격적인 첫 연구인 J.H. 윌리스의 토대 연구 『출판가로서의 레너드와 버지니아 울프: 호가스 출판사 1917-1941』에서 주제별 출판 목록을 개괄해 보면 앞서 언급한 출판 목표가 분명해 진다. 호가스에서 출판한 목록을 주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모더니즘 또는 아방가르드 작품 2)페미니즘 계열의 작품과 러시아 작품 번역 3)반제국주의 작품 4)프로이트와 그 외 정신분석 번역 5)정치 팸플릿. 한편 주제별 목록 뿐 아니라 서적 목록의 연도별, 시대별 출판 궤적의 분석을 통해서도 호가스 출판사의 성장과 이에 따라 수행한 당대 사회 비판과 담론 선도자로서의 기여를 찾을 수 있다. 연구 방법으로 출판 목록을 점검하여 울프의 실험적인 소설들의 발표 시기를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조명하고 호가스 출판사의 출판 결정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의 변화와 성장의 궤적을 추적해 볼 것이다.⁷⁾ 시대 변화와 함께 울프의 주요 관심과 사상 변천의 추이를 보여주는 출판 목록을 살펴보자.

1917-23:

모더니즘 문학을 중심으로 출판했다. 첫 해에 버지니아 울프의 「벽 위의 얼룩」, 캐서린 맨스필드의 「서곡」, T. S. 엘리엇의 시들을 출판했다. 이와 함께 1920년에 중요한 출판물은 러시아 문학의 번역이다. 맥심 고르키(Maxim Gorky)의 『톨스토이 회상』(*Reminiscence of Tolstoy*)을 비롯하여 일곱 편의 러시아 문학이 번역되었다. 울프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사실주의 문학을 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기의 문학과 같은 새로움을 읽어냈고 이에 매료되었다. 러시아 문학에서 사실에의 근접보다 ‘내면의 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녀의 문학과 조우하는 지점을 발견한 것이다. 러시아 문학 번역물의 출판과 함께 ‘개인 출판업자’(private press)에서 ‘소규모 출판사’(small publishing house)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922년에 『제

7) 추후 연구에서 이 방법론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버지니아의 일기나 편지에서 울프가 직접 출판에 관해 언급한 부분들, 특정 집필과 출판과의 상호 영향 관계 연구가 유의미할 것이다.

이콥의 방』의 출간과 함께 버지니아의 전속 출판사가 되었다. 1923년에 버지니아가 직접 식자와 조판을 담당하여 엘리엇의 「황무지」(“The Waste Land”)를 출판함으로써 『다이얼』, 『에고이스트』 등의 잡지와 함께 모더니즘 운동에 참여 하게 되었다(리 724). 「황무지」는 모더니즘 계열 작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1920년대 중후반:

가장 생산적인 기간으로 계속 모더니즘 운동을 지지했다. 1924년에 호가스 출판사는 사무실과 집을 런던 교외에서 블롬스버리로 옮겼다. 출판 활동을 런던의 중앙부로 옮긴 것은 출판에 대한 헌신의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1927년에서 1932년 사이에 출판이 절정을 이루어 매년 평균 26목록을 출간했다. 이 시기는 울프가 작가로서 성숙하는 시기로서,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랜도』, 『자기만의 방』이 출판되었다. 특히 『올랜도』와 『자기만의 방』은 성공적인 판매고를 기록하여 레너드 울프에 따르면 『올랜도』의 출판 이후 인세와 출판사의 이윤을 합쳐 경제적 걱정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선물 경제의 방식으로 몇몇의 흥행작들의 이윤에 기대어 본격 실험 시, 정치, 국제관계 팸플릿들을 출판하는 식으로 호가스는 운영되었다. 모더니즘의 이념이 진전되어 엘리엇의 「존 드라이덴에게 헌정」(“Homage to John Dryden”)을 출판했고 울프의 『일반 독자』(*The Common Reader*) 또한 출판되었다. 1929년에 『자기만의 방』이 출판되었다.

1930년대 초 중반:

이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1930년대 초, 중반은 문화적 가치가 급변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편으로 젊은 시인이자 편집자인 존 레만(John Lehman)이 출판사 운영을 맡게 되었고 레만은 오든(Auden) 씨클 시인들의 영향력 있는 선집들을 성공적으로 펴냈다. 한 편 울프는 이 시기에 출판한 『파도』(*The Waves*)에서 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서정 소설(lyrical fiction) 쓰기에 작별을 고하기 시작했다. 『세월』(*The Years*)의 출판에 이르러서는 자기 방식의 사회적 사실주의 소설을 썼다. 이는 1930년대 중반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그녀의 창작 에너지를 고통스럽게 재조정된 결과이다. 이 시기에 스펀더(Steven Spender)와 이셔우드(Christopher Isherwood)의 사회의식 소설을 출판했다. 예컨대 1935년에 펴낸 이셔우드의 『노리스씨 기차 바꿔 타다』(*Mr. Norris*

Changes Trains)는 베를린을 배경으로 히틀러의 부상과 30년대의 사회 붕괴 상을 그린 작품이다. 실험적 소설과 평론을 통해 꾸준히 표출되어 온 버지니아의 신념은 1929년의 『자기만의 방』을 거쳐 1938년의 『3기니』의 출판으로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울프의 가부장제 비판은 전쟁, 제국주의, 파시즘을 반대하는 사회 비판으로 심화되고 확장되었다. 지금까지 호가스 출판 목록을 연대별로 고찰했다. 호가스 출판 목록의 주제 중에서 특히 반제국주의와 정신 분석 관련 서적 출판이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또 선도한 것으로 중요하다.

레너드와 버지니아 울프는 호가스 출판사에서 제국주의 비판의 이론적 글과 소설들을 펴내며 반제국주의 정서와 이론에 구심점이 되었다.⁸⁾ 실론의 영국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레너드는 실론에서의 경험 이후 1920년대와 30년대에 반제국주의에 관한 뛰어난 이론가가 되었다. 1924년에는 제국주의 문제 관련 노동당 자문위원회⁹⁾의 간사로 정책 개발 관련 일을 했다. 레너드는 당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치적 문제는 인도의 독립 주장과 제국주의 이름하에 자행되는 아프리카의 경제적 착취라고 보고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각종 글과 팸플릿을 썼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33년의 정치 팸플릿 「하루하루」16호(*Day to Day No.16*)이다. 버마에서의 제국 경찰관 경험 이후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코끼리 쏘기」(“Shooting an Elephant”)라는 뛰어난 반제국주의 에세이를 써 냈듯 레너드는 『아프리카의 제국과 상업』(*Empire and Commerce in Africa* 1920), 『제국과 문명』(*Imperialism and Civilization* 1928)을 호가스에서 출판했다.

작가로서 반제국주의 이념의 글을 쓰고 출판할 뿐만 아니라 호가스 출판사는 제국 주변부의 작가들을 발굴했고 그들의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또한 제국주의를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출판이 주요 이론서 『블랙 자코뱅』의 저자 C.L.R. 제임스(C. L. R. James)의 『서인도 제도 자주 독립의 경우』(*The Case for West Indian Self-Government*)이다. 제임스는 책 출판 한 해 전인 1932년에 트리니다드에서 볼룸스버리에 도착 했고 이후 영국 문화 학회에서의 제임스의 활동도 호가

8) 스네이스(Anna Snaith)의 연구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할아버지인 제임스 스티븐은 서인도 제도의 해방을 위해 헌신했다. 노예 해방주의자인 윌리엄 윌버포스와 활동 한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206).

9) Labour Party's Advisory Committee on Imperial Questions

스 출판사와 연계되게 되었다. 망명 중인 인도 민족주의 활동가이자 작가인 아난드 (Mulk Raj Anand) 또한 1927년 경 호가스 출판사의 타비스톡 스퀘어 사무실에서 교정 일을 보며 일함으로써 블룸스버리 한 복판에 강력한 반식민주의 정서를 물고 왔다¹⁰⁾(Snaith 208).

호가스 출판사는 정신분석 학회 출판물 전체와 프로이트, 클라인, 에이브러햄 (Karl Abrahm) 등 정신 분석가들의 저서를 출판하여 정신 분석이 실제 치료법과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2차 대전 전의 영국 사회에 퍼지고 정착하는데 기여 했다¹¹⁾(Bahun). 제임스 스트레치(James Strachy)¹²⁾의 프로이트 전집 영역 본은 정신 분석 이론이 영어권으로의 확산되고 20세기의 주요 담론으로 정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호가스는 국제 정신 분석 학회 시리즈 등 정신 분석 관련 서적을 계속 출판 했고 호가스의 정신 분석 서적 출판은 프로이트 망명 이후 정신 분석이 영국에서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정신 분석과 애나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자아 심리학적 정신 분석의 두 흐름으로 정착하는데 기여 했다 (Randall 95-97).

IV.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울프, 국외자 단체로서의 호가스 출판사

글쓰기의 미학적 형식 실험은 울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그러나 울프는 또한 호가스 출판사의 출판을 통하여 담론의 중심에서 당대 첨예한 논제들을 직면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호가스 출판사라는 자기 소유의 출판사는 글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유를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출간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인으로서의 울프는 출판 목록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주장, 선포했다. 호가스 출판사가 기존의

10) 1981년에 그는 『블룸스버리에서의 대화』(Conversations in Bloomsbury)를 펴내어 울프 부부, 포스터, 엘리웃 등과의 만남, 상호 영향을 서술하였다(스네이스 208).

11) 샌저 베이헌(Sanja Bahun)에 따르면 호가스 출판사는 1922년에 IPL 페이퍼 6권, 『쾌락 원리 너머』, 『집단심리학과 이교분석』을 출판하였고, 연구논문 선집(Collected Papers) 4권을 1924-1925에 걸쳐 출판하였다.

12) 부인 앨리스 스트레이치(Alice Strachy)가 블룸스버리 그룹과 친분이 있었다.

주류 출판사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울프 학자 마커스는 “우리는 출판 또한 울프의 싸움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호가스 출판사에서 펴낸 출판물들의 목록에서 실험적인 글쓰기 뿐 아니라, 페미니즘, 사회주의, 평화주의, 반제국주의, 반파시즘에 바쳐온 울프의 투신을 분명하게 간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8). 울프는 1938년의 서간체 형 정치 에세이 『3기니』(*Three Guineas*)에서 제시, 선포하고 글쓰기로 실천하고 있는 명제를 자신의 글쓰기 형식 실험과 호가스 출판사의 출판 목록 선택에 준거로 삼고 있다.

『3기니』와 『자기만의 방』은 독특한 문학적 형식을 사용한 후기 울프의 대표적 정치적 에세이이다. 1929년에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자기만의 방’이라는 상징을 들어 여성문제를 다루고 가부장제를 비판했다. 9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2차 대전 전 30년대의 급박한 사회 상황에서 울프의 사회의식은 더욱 확장되어 『3기니』에서는 가부장제를 비판함과 동시에 가부장제의 뿌리가 된다고 울프가 주장하는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주의와 파시즘을 함께 비판한다. 울프가 제목으로 삼은 ‘3기니’라는 화폐가 이미 제국주의와 계급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상한다.

『3기니』는 내용과 글쓰기 형식에서 혁신적인 복잡한 층위의 글이다. 예컨대 이 글이 담고 있는 페미니즘만 해도 여러 층위이다. 한 편으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페미니즘은 끝났으니 그 단어를 불태우자고 주장 하는가 하면, 가정 같은 사적 공간의 일에 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가라는 21세기 현재로서도 급진적인 페미니즘적 사고의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한다. 또한 울프는 “교육받은 남자의 딸들”이라는 단어를 후렴구처럼 반복하며 이 글에서 다루는 상황이 “교육받은 남자의 딸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이로써 울프가 젠더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계급적 소외 계층의 문제를 첨예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시된다. 울프가 제시하는 “국외자 단체”도 국가주의를 초월하는, 페미니즘 내에서도 급진적인 비전이다.

본고에서는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출판인 울프와 『3기니』의 작가 울프가 공히 중시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울프가 『3기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기존의 공과 사 구분의 권력 관계 허물기 둘째, “당신의 단체”와 대조되는 “차이”를 존중하는 “국외자 단체” 비전, 셋째, 새로운 말과 새로운 방법의 창조, 이에 따른 주체적 글 읽기와 글쓰기의 제안이 출판인 울프와 『3기니』

의 작가 울프가 만나는 지점이다. 울프는 공과 사 구분에 대하여 『3기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선생님, 현재 세계는 두 가지 업무, 하나는 공공 업무, 다른 하나는 사적 업무로 나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공공 업무 영역에서는 교육받은 남성의 아들들이 공무원, 판사, 군인으로 일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사적 업무 영역에서는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이 아내, 어머니, 딸로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녀들은 일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나요? 어머니, 아내, 딸로서의 일은 국가에 아무런 현금 가치도 없는 일이란 말입니까? (66)

이 글에서 울프는 제도적 공간으로서의 공적 공간과 대비되는 곳으로서의 사적 공간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사적 업무의 영역은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공적 제도의 폭력으로 침범당하고 파괴되고 무너진다. 여기서 공적 제도란 전쟁, 파시즘, 제국주의, 그리고 이들의 뿌리가 되는 가부장 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루이 알튀세(Louis Althusser)가 이론화한 이른바 억압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다. 이 지점에서 화자는 『3기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여자로서 나는 나라가 없다. 여자로서 나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여자로서 내 나라는 전 세계다.”라는 언명을 하고 가부장제가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주의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음을 천명하며 가부장제로 인한 폭력과 전쟁을 뛰어넘을 것을 요청한다.

울프는 사적 공간, 업무, 영역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사적 공간을 공적 공간과 대등한 위치로 자리 매김하고자 한다. 이 사적 공간의 첫 번째 의미는 『자기만의 방』에서 주장하는 자기만의 방, 개인의 주체성과 감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의 사적 공간이다. 다른 하나는 ‘사적 문화의 공간’, 주체적인 글 읽기와 자기만의 글쓰기의 공간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폄하되어 왔던, 예컨대 편지, 자서전 등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발현된 문화이다. 출판인 울프는 기성의 작가가 아닌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나 식민지 지역에서 오는 작가들과 같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경계 밖의 작가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학문이나 예술영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일반인 누구든지 하나의 자서전을 쓰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울프의 글은 ‘일반 독자’들을 향한다.

『3기니』는 반전 단체의 기부 요청 편지에 답하는 사적인 답장 편지로 <1기

니>, <2기니>, <3기니>의 세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자는 요청 받은 반전 단체 대신 첫째 기니를 ‘여성 교육’을 위하여, 둘째 기니를 ‘여성의 직업’을 위하여 기부한다. 왜냐하면 여성 교육과 여성의 직업 확보가 반전을 위해 우선이 되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셋째 기니에 이르러서야 공동의 목표를 가진 반전 단체의 기부 요청에 아무 조건 없이 응한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 단체에 가입하라는 요청은 거부한다는 점이다. 전쟁이라는 악을 제거한다는 동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과 우리가 다르므로 그 도움도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169).

그 동안 우리는—불완전하고 피상적이거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해 왔습니다. . . . 우리는 선생의 말을 반복하거나 선생의 방법을 답습함으로써가 아니라 **새로운 말과 새로운 방법을 창조함으로써** 전쟁 방지를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 단체에 가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선생 단체의 바깥에서 그 목표를 위해 일함으로써** 선생의 전쟁 방지를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169-70, 필자 강조)

화자는 전쟁 방지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지만 그 단체에 가입하기에는 깊은 내면의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한다. 그것은 “이유나 감정이라고 할 것은 아니며 그보다 더욱 심오하고 근본적인 무엇 . . . **차이**라고나 할” 무엇 때문이다. 하지만 “성(性)과 교육에서 차이”가 있는 우리가 “자유를 수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데 . . . 도울 수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차이**에서 나올 것”이며 신청서에 서명하고 회원이 되면 “그 차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독자성과 다양성이 무시되는, 차이를 무화시키는 공적 단체인 선생 단체의 ‘바깥’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할 것이다. “정의와 평등과 자유라는 위대한 원칙을 스스로 존중하는 모두의, 모든 남녀의 권리”(170)를 선포하는 것은 국외자 단체에서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이 형성될 국외자 단체의 비전을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말과 새로운 방법을 창조함으로써 정의와 평등과 자유라는 위대한 원칙이 수호된다는 화자의 언명이다. 그리고 ‘차이’를 지킴으로써 새로운 말, 새로운 방법이 창조된다는 방법론적 성찰이다.

목표는 우리 다 같습니다. “정의와 평등과 박애라는 위대한 원칙을 스스로 존중하는 모두의-모든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170)

울프는 『3기니』에서 단지 반전과 평화의 이념을 ‘주장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념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적 지향점인 새로운 말과 새로운 방식을 또한 숙고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에 차이의 존중이 자리한다.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울프의 비전은 중층적이다. 차이의 인정과 포용은 그녀가 글쓰기로, 출판으로, 강연으로 언명해온 문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독자성의 존중으로 이어진다. 마커스는 『3기니』 서문에서 이 글에서 울프의 글쓰기 방식이 독자에게 화자의 다중적 목소리를 따라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 바뀌는 다중적 주체 위치를 부여하므로 읽기 어려우며 이 어려움 때문에 울프가 ‘국외자 단체’의 모델이 될 담론 공동체를 독자와 함께 형성하고자 하지만 실패했다고 평한다.

작가 측에서 평화, 여성교육, 반과시즘이라는 대의명분에 우리가 두고 있는 관심에 근거하여 담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시도는 용감했지만 내 생각으로는 실패하였다. 어쩌면 편지와 그 답장에 의해 형성된 ‘우리’를 국외자 단체의 모델로 사용하면서 만든 것 말이다. . . . 이 책을 읽는 어려움 중 하나는 화자의 다중적 목소리를 따라 가면서 우리에게 부여한 다중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Marcus xlii)

그러나 이러한 글 읽기의 형식적 어려움은 의도적인 것이다. 울프가 ‘어려운’ 글쓰기의 형식을 통해 의도하는 것은 독자가, 여성과 남성, 제국주의자와 평화주의자 모두가, 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호명된 스스로의 주체 위치를 새로운 말과 글쓰기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즉, 울프의 새로운 글쓰기는 독자에게 고정된 역할과 주체 위치를 부여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사상을 성찰하고 문화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한 편, 맥태젯은 호가스 출판사를 국외자 단체의 현실적 실현이라고 보았다. 이에 더 나아가서 호가스 출판사라는 국외자 단체를 사적 영역과 시민적 공공영역¹³⁾이 교차하는 ‘생성적 사적 영역’¹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적 공간인

13) 본고는 ‘public sphere’를 ‘시민적 공공영역’으로 칭한다.

울프 부부의 개인 집 호가스 하우스에서 출발한 호가스 출판사는 개인 집으로서의 사적 영역과 출판사로서의 시민적 공공영역이 교차하며 공존하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생성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형성 가능한’ 또는 ‘발현되는’(emergent)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생성적 사적 영역’은 공과 사가 교차하며 발현되는 ‘형성 가능한 공동체’를 지칭한다. 하버마스는 시민적 공공영역¹⁵⁾을 이론화하며 인쇄 시스템의 발전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의제를 논의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하버마스의 이론에서는 이 모든 시민이 ‘서구, 백인, 남성’으로 획일화되고 구성체 내부에 내재된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부당함을 간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호가스 출판사와 국외자 단체와 연결하여 논의되는 시민적 공공영역은 하버마스가 이론화하는 시민적 공공영역과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구성체의 다양성이 강조된다는 의미에서 하버마스의 개념¹⁶⁾을 넘어서고자 한다. ‘생성적 사적 영역’은 울프가 『3기니』에서 비판하는

-
- 14) ‘생성적 사적 영역’은 필자의 용어이다. 관련된 최근의 연구로는 일본 고베대학교 대학원 국제문화학과의 인류학자 전은이, 「지속가능한 마을, 마을성: 글로컬 시대의 <작은 나라 적은 백성>」 『작은 연구 보고서』 6 (경기도; 따복 공동체 지원 센터, 2015) 1-12. 전은이는 오늘날의 공동체가 공공권(public sphere)과 개인의 주관성에 의해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친밀권(intimate sphere)의 교차 영역에 위치한다고 보고 이 영역을 “형성 가능한 공동체”로 지칭했다(5). ‘생성적 사적 영역’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교차하며 ‘형성 가능한’ 공동체이다.
- 15) 전은이가 소개하는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하는 공과 사 구분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아렌트(Hannah Arendt),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공화정 중심의 공과 사 구분이다. 아렌트의 관점에서 ‘공’은 국가, 정치, ‘사’는 가족을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을 일부 이어받아 ‘국가권력’과 ‘시민 사회’(public sphere)를 대치시킨다. 시민 사회를 다시 시민적 공공권, 정치적 공공권, 문예적 공공권으로 나누고 자발적 결사활동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율적 공공성’을 전망으로 제시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이질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시민이 자발적 결사를 통해 소통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는다(5). 그러나 하버마스의 ‘소통에 의한 합의’에 관하여는 그 허와 실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 16) 하버마스의 시민적 공공영역(public sphere)과 이의 한계를 지적하는 반(反)시민적 공공영역(counter public sphere), 그리고 여성주의 시민적 공공영역(feminist public sphere)의 논의는 커디-킨의 연구 참조. 커디-킨은 하버마스의 의견인 인쇄 시스템의 발전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의제를 논의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구성체 내부에 내재된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부당함을 간과하는 한계를 노정함을 지적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에는 사적 공간인 친밀권에 대한 고려가

빅토리아 시대의 명확한 공과 사의 공간 분리와 공간의 위계질서를 허물며 공적인 제도적 공간과 대등한 중요성을 부여 받는다.¹⁷⁾ 생생적 사적 영역으로서의 호가스 출판사는 국외자 단체로서 여러 경계들을 넘나들며 형성되며 현실에 없는 이상향의 유토피아적 공간이 아니라 현실에 공존하는 유토피아로 푸코가 개념화한 헤테로토피아의 대안 공간이다.

V. 나가며

울프는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싸움이라고 말했다(*Diary* 5권 28쪽) “나는 다른 무엇보다 더욱 더 필요한 일을 글쓰기로 행하고 있다”(A *Sketch*, 73쪽)고 했다. 출판 또한 그녀의 필요였고 싸움이었다. 작가 울프는 글쓰기의 형식 실험을 통하여 영국 문학사 정전의 계보에 전복적으로 개입했다. 출판인 울프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는 출판을 통하여 당대의 담론을 선도하며 사회에 비판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글과 출판을 통하여 울프는 “새 세대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고자”(J. H. Willis 114) 했다. 잘 읽는다는 것이 곧 민주 시민의 교육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파울로 페라리의 비판적 페다고지는 “기능적인 글 읽기와 글쓰기 능력”의 습득으로 문맹을 벗어나고 문제 제기를 통하여 사회 비판의식을 함양할 것을 강조했다. 울프가 가르치고자 한 글 읽기와 글쓰기는 이에서 더 나아간 “문화적인 글 읽기와 글쓰기 능력”이며 이를 통한 개개인의 독자성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 능력의 함양이다. 주체적인 글 읽기와 글쓰기가 울프가 꿈꾸는 문화민주주의를

없으며 공공권의 주체가 추상적(서구, 백인, 남성)으로 획일화 된다.

17) 울프에 있어서의 공과 사에 관하여 두드러진 연구로는 공과 사의 협상을 논하는 스페이스의 *Virginia Woolf: Public and Private Negotiations*,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논하는 버만의 “Woolf and the Private Sphere,”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논하는 커디-킨의 “Virginia Woolf and the Public Sphere”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공과 사 개념이 중첩적으로 쓰이고 있어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울프에 있어서 ‘사적인’ 것 ‘사적 공간’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향후 연구를 요한다. 커디-킨은 편집자로서의 울프의 편지들이 남아있다면 울프에게 있어서 공과 사의 구분이 좀 더 명확했으리라 평한다(241).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커디-킨이 울프 연구에서 공과 사 구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점이다.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앞서 평화 단체가 이야기한 정의, 평등, 자유라는 위대한 원칙으로 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실과 유리된 모더니스트, 70년대 이후 갑자기 부상한 페미니스트의 대모 모두 울프의 양 극단의 이미지이다. 본 연구가 조명한 호가스 출판사의 출판인이자 작가인 울프는 공적 지식인으로서 생성적 사적 공공영역에 참여하며 경계를 허무는 다층적이고 다성적인 작가이자 비판적 교육자이다.

(경희대)

Works Cited

- 전은이. 「지속가능한 마을, 마을성: 글로컬 시대의 <작은 나라 적은 백성>」. 『작은 연구 보고서』 6권. 경기도 파북 공동체 지원센터, 2015.
- 허마이오니 리. 『버지니아 울프 1: 존재의 순간들, 광기를 넘어서』. 정명희 옮김. 책세상, 2001.
- Bahun, Sanja. “Woolf and Theory.” *Virginia Woolf in Context*, Edited by Bryony Randal and Jane Goldman, Cambridge UP, 2012, pp. 92-109.
- Berman, Jessica. “Woolf and the Private Sphere.” *Virginia Woolf in Context*, edited by Bryony Randal and Jane Goldman, Cambridge UP, 2012, pp. 461-73.
- Cuddy-Keane, Melba. *Virginia Woolf, the Intellectual,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UP, 2003.
- . “Virginia Woolf and the Public Sphere.”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rginia Woolf*. 2nd ed. edited by Susan Sellers, Cambridge UP, 2010, pp. 231-49.
- Hunter, Adrian. “The Custom of Fiction: Virginia Woolf, the Hogarth Press, and the Modernist Short Story.” *English*, vol. 56, 2007, pp. 147-69.
- Lee, Hermione. *Virginia Woolf: A Biography*. Chatto and Windus, 1996.
- Marder, Herbert. Review. *Leonard and Virginia Woolf as Publishers: The Hogarth Press, 1917-41*, by J. H. Willis. *Th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vol. 93, no. 1, 1994, pp. 131-34.
- McTaggart, Ursula. ““Opening the Door”: The Hogarth Press as Virginia Woolf’s Outsider’s Society.”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vol. 29, no. 1, 2010, pp. 63-81.
- Meisel, Perry. “Woolf and Freud: The Kleinian Turn.” *Virginia Woolf in Context*, edited by Bryony Randal and Jane Goldman, Cambridge UP, 2012, pp. 332-41.
- Patrick-Shannon, Drew. “Woolf and Publishing: Why the Hogarth Press Matters.” *Virginia Woolf in Context*, edited by Bryony Randal and Jane Goldman, Cambridge UP, 2012, pp. 313-21.
- Randall, Bryony, and Jane Goldman, eds. *Virginia Woolf in Context*. Cambridge

- UP, 2012.
- Rosner, Victoria. *Modernism and the Architecture of Private Life*. Columbia UP, 2005.
- Snaith, Anna. "Race, Empire, and Ireland." *Virginia Woolf in Context*, edited by Bryony Randal and Jane Goldman, Cambridge UP, 2012, pp. 206-18.
- . *Virginia Woolf: Public and Private Negotiations*. Palgrave, 2003.
- Whitehead, Kate. "Broadcasting Bloomsbury Author(s)." *Yearbook of English Studies* 20, *Literature in Modern Media: Radio, Film, and Television Special number*. 1990, pp. 121-31.
- Willis, J. H. *Leonard and Virginia Woolf as Publishers: The Hogarth Press, 1917-1941*. U of Virginia P, 1992.
- Woolf, Leonard. *Downhill All the Way: An Autobiography of the Years 1919-1939*. Hogarth, 1967.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Harcourt Brace, 1989.
- . *Three Guineas*. Harcourt Brace, 1966.
- Woolf, Leonard and Virginia Woolf, "Are Too Many Books Written and Published?" Introduction by Melba Cuddy-Keane. *PMLA*, vol. 121, no. 1, 2006, pp. 235-44.

Abstract

Virginia Woolf as Public Intellectual: Hogarth Press and Broadcasting

Sungran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Hogarth Press and publishing in Virginia Woolf as writer and public intellectual. Hogarth Press contributed to Woolf's development as modernist writer and social thinker who rejects patriarchy, war, imperialism and fascism. The selections of the publishing titles by Woolf as publisher reflect Woolf's thoughts as writer. As public intellectual, Woolf's own political and ethical agenda is to expand cultural democracy. The writer and publisher Woolf is also the educator who promotes "cultural literacy" by creating and teaching new method of reading and writing.

The Press started initially as private venture to distract Virginia physically from over-extended concentration on writing and intellectual labour. The press offered her creative freedom to write innovative works without publisher's interventions and offered her intellectual networks and economic freedom also. Equally importantly, the Press made social contributions as the center of new discourses, publishing modernist writings and political writings with socio-political critiques of patriarchy, imperialism, faascism, and war. It functioned as a political and artistic haven for writers from the Empire's periphery such as C. L. R James. The press helped British psychoanalysis take roots in England by publishing entire translations of Freud and other psychoanalysts.

The Press materializes the vision of Outsiders' Society in *Three Guineas*. It is alternative space in which private and public spaces meet and cross, a heterotopia.

■ **Key words** : Hogarth Press, Publishing, BBC, Public Intellectual, Virginia Woolf, *Three Guineas*, Emergent Private Sphere
(호가스 출판사, 출판, 영국 공영 방송, 버지니아 울프, 『3기니』, 생성적 사적 공간)

논문접수: 2019년 5월 18일

논문심사: 2019년 6월 15일

게재확정: 2019년 6월 26일